젠더를 복잡하게 사유하기

모니크 위티그, 허윤 역,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이성애 제도에 대한 전복적 시선』, 행성B, 2020
수전 팔루디, 손희정 역, 『다크룸—영원한 이방인, 내 아버지의 닫힌 문 앞에서』, arte, 2020

한우리
중앙대학교 영문학 박사 수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몇 달 전 성전환 수술 뒤 강제로 전역해야 했던 변희수 육군하사와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마치고 숙명여대 입학을 앞두었으나 자진해서 등록을 포기해야 했던 트랜스젠더까지 두 여성의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안타깝게도 두 여성은 계속해서 원하는 직종에 복무하거나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두 사건은 한국사회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만연한 트랜스젠더 차별과 혐오를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혐오발언은 성소수자 개인의 권리보장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과 더불어 '젠더'에 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특히 "트랜스젠더퀴어 혹은 젠더 다양성을 주장하는 일련의 흐름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한 차별, 젠더 위계 질서를 말하기 어려워졌다"는 식의 일부의 주장은 루인의 말처럼 "젠더 위계 질서를 다루는 논의와 젠더 다양성 논의는 서로 모순되거나 배척한다는 이해를 전제"한다.[1] 이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일은 페미니즘의 핵심적인 분석범주로서 젠더를 복잡하게 사유하는 작업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래에 소개하는 두 권의 책은 적절한 때에 맞춰 출간되었다고 하겠다.

정상성과 자연화된 이성애적 사유를 넘어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위티그의 주요 에세이를 완역했다. 68년 프랑스 여성해방운동(MLF)을 선도한 급진적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위티그는 보부아르의 명제를 뒤집은 "누구도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대담한 주장과 함께 실험적인 문학 텍스트로도 주목받았다. 『스트레이트 마인드』의 전반부를 이루는 다섯 편의 글이 위티그의 이론적 궤적을 담고 있다면, 후반부의 네 편은 그녀가 치열하게 고민하던 글쓰기와 언어의 문제를 다룬다. 이 글은 전반부에 담긴 위티그의 사상에 초점을 맞춘다.

서문에서 위티그는 자신의 정치적·철학적 관점을 '유물론적 레즈비어니즘'

1 루인, 「젠더 다양성: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기」, 핀치. 발행일: 2018.11.28. https://thepin.ch/think/mmIBE/gender-and-feminism (검색일:2020.04.16)

으로 소개한다. 그녀의 사유는 '여성'이 '자연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음을 드러내고 파괴하는 이로 레즈비언 존재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고유하며, 여성은 성적 위계질서에 의해 구성된 정치적 계급에 속하며, 이 계급관계 속에서 남성은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얻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유물론적이다. 남녀관계는 계급관계이며, 페미니스트는 계급으로서 여성이 사라지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는 이성애 사회를 파괴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성애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남성은 여성의 재생산과 생산을 결혼계약을 통해 통제하며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위티그가 공들여 설명하는 것은 이성애가 자본주의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시스템이자 정치적 체제라는 점이다.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는 사회를 이성애적으로 설립하기 위한 정치적 범주로 설명된다. 성 범주는 본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정치적·철학적·상징적으로 파괴되어야 한다. 위티그는 철저히 생물학과 성 범주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여성의 억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여성이란 누구이며 무엇인지 다시 정의하고자 한 급진적인 사상가였다.

위티그의 글은 1970년대 레즈비언/퀴어 페미니스트들이 벌인 치열한 논쟁과 정치적 기획 속에서 함께 읽힐 때 더욱 의미가 깊다. "레즈비언은 '진정한 여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 다시 말해 '여성'의 본질이라고는 남성과 섹스 한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 래디컬 레즈비언의 「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 "레즈비언이 된다는 것은 남성들의 세계에서 부여받은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여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역설한 샬럿 번치의 「반란을 일으키는 레즈비언들」, 레즈비언 연속체라는 용어를 통해 "개별여성의 삶과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다양한 여성 동일시의 경험을 아우르려 한" 에이드리엔 리치의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 등은 위티그의 사유를 한층 풍요롭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2] 이들은 모두 가부장제와 젠더 체계란 이성애 제도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리하

2 「여성과 동일시하는 여성」은 『페미니즘 선언』(한우리 기획·번역, 현실문화, 2016)에, 「반란을 일으키는 레즈비언들」과 「강제적 이성애와 레즈비언 존재」는 『레즈비언 페미니즘 선언: 반란, 연대, 전복의 현장들』(나영 엮고 옮김, 현실문화, 2019)에 각각 번역 수록되어있다. 각각의 인용쪽수는 116쪽, 64쪽, 143쪽이다.

게 포착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은 '진정한' 여성이 아니다. 젠더 체계는 이성애를 기준으로 삼아 고안된 시스템이며, 이 체계 안에서 모든 여성은 남성과 짝을 지어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인류를 보존할 의무를 진다. 흥미로운 것은 위티그가 레즈비언을 젠더의 장 외부에 둠으로써 이들을 가부장제의 명령에서 벗어난 존재로 위치시킨다는 점이다. 위티그가 말하는 레즈비언은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여성이 아니며, 남성과 관계 맺지 않음으로써 여성-정체화된 여성(woman-identified woman)이 된다.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 또한 레즈비언과 유사한 위치에서 자연화된 이성애 제도와 젠더체계에서 벗어난 존재로 정치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위티그는 레즈비언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생물학에 기반 하여 단순히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적대시하지도 않았다.

위티그와 더불어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내부의 차이에 주목하고, '여성'이 의미하는 바를 되물음으로써 '젠더'를 페미니즘 내에서도 문제적인 개념으로 부상시켰다. 이들은 젠더란 이성애를 지탱해주는 억압적인 구성물이라는 핵심적인 주장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억압구조를 설명하는 주요한 분석틀로 대두시켰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의 통찰에 의해 이성애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 선호나 사적인 관계 맺기의 양식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특권을 분배하는 제도이자 시스템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이들의 작업은 이후 루빈과 버틀러, 퀴어·트랜스젠더 이론으로 발전하는 페미니즘의 한 갈래와 이어지며, 중산층 이성애 백인 여성이 아닌 다른 성애를 향유하고 다른 인종과 계급에 속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억압이 그저 '여성됨'에 의한 것만은 아님을 주장하며 젠더를 계속해서 문제적 개념으로 제시한 흑인/유색여성 페미니즘, 포스트식민 페미니즘과 함께 발전해 왔다. 이제 '젠더'는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 국적 등 다층적인 억압의 축들과 교차하며 구성되는 권력구조와 불평등을 분석하는 페미니즘의 핵심적 분석범주로서 사유되고 있다.

그의 어두운 방,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

수전 팔루디의 『다크룸』은 정치화되고 역사화된 '젠더' 개념을 복잡하게 사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또 하나의 안내서이다. 이 책은 아내와 아이들 위에 군림하

길 원했던 폭력적인 아버지가 이혼 후 연락이 끊겼다가 트랜스젠더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걸출한 페미니스트이자 저널리스트인 딸 수전 팔루디는 여성이 된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헝가리를 방문한다. 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서히 딸과 아버지가 다시 관계를 맺는 과정을 담은 이 두터운 회고록은 읽는 이에게 예기치 못한 감동을 준다. 개인적 감상을 넘어 책에 담긴 삶은 "개인의 사적인 정체성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경합에 대한 질문이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근대성이라는 보다 넓은 틀에서 권력의 작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근본적"(121쪽)이라는 퀴어 이론가 애너매리 야고스의 말을 적실히 보여준다. 어린 유대인 소년은 자기 '인종'의 남자란 정신질환을 가진 계집애 취급을 당하는 반면, 여자는 마치 '진정한 여성'처럼 대접받는 문화 속에서 어른이 된다. 미국으로 이민 온 후 그는 미국식 남편과 아버지가 의미하는 과잉 남성성의 틀에 스스로를 맞추려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그는 두 번의 결혼파탄이 성 범주와 정체성, 가정, 국가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부모의 결혼이 파경을 맞았을 때 소년은 모든 것이 처참히 파괴된 전 지구적 전쟁의 한복판에 내던져졌다. 그 자신의 결혼생활이 끝이 났을 때,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그는 다시 한 번 가정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저자 수전 팔루디의 말처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시대를 정의하고 꿰뚫는다. 특히 누군가의 젠더 정체성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사유와 기존과는 다른 질문을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성장과 상호적인 변화를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정체성의 위기와 역사적 발전에서 일어나는 당대의 위기를 구분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각각이 서로를 정의하고 진정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101쪽). 수전 팔루디는 아버지의 길었던 여정을 "젤리그(zelig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의 여정"으로 이해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파시스트 유럽의 붕괴 속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드러냈으며 전후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로 그 시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표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학은 정체성과 젠더의 혼란스러운 융합을 숨겼다(408쪽). 인종적 순수성, 민족적 순수성, 이념적·종교적 순수성에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성 정체성의 가정된 순수성은 억압적이다. 수전 팔루디의 조심스럽지만 꼼꼼한 기록은 누군가의 성 정체성이 그가 살

아온 경험들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가리는 장막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정체성은 젠더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문화, 종교, 인종, 정치에서 비롯한 여러 범주와 경험이 서로 얽혀 상호작용하며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명하는 작업은 단순하지 않다. 한 명의 트랜스젠더가 겪은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일, 그/녀를 이해하는 일이 곧 젠더를 복잡하게 사유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이기도 하다.